문화예술로 교감하는 송산동 '뮤직로드'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등 아름다운 자연 배경 소박한 무대서 시민·관광객과 교감

서귀포시 송산동(동장 오영관)은 서귀진지에서 자구리공원, 소천지, 구두미포구까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 송산동의 빼어난 자연을 배경삼은 야외무대에 지역에서 활동중인 여러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올라 시민·관광객과 교감하는 공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송산동주민자치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마을에서는 여러 문화예술동아리들이 활동해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이들이 기존 문화예술동아리에 합류하거나 새로 동아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풍성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마을에 깃들고 있다.

2014~2016년 지역에서 결성돼 활동해오고 있는 '솔동산음악회'를 비롯해 '시인과 나 문학회', '카노푸스 음악회', '산책길 중창단' 등의 문화예술동아리들은 자구리공원이나 구두미포구 등에서 열린 음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해오고 있다.

송산동주민자치센터의 기타교실프로그램에서 시작된 '2Capo 기타동아리'도 2012년 결성후 지금까지 서귀진성과 자구리공원 등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또 2019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동아리인 '드레핀 합창단'과 '금빛앙상블'도 빼놓을 수 없다. 드레핀 합창단은 구두미 포구에서 개최되는 작은 음악회 등에 참여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금빛앙상블도 여럿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공연을 열 수 있고, 공연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문화도시인의 열망으로 송산동에는 서귀진지에서 시작해 보목의 구두미 포구까지 이어지는 '뮤직로드'가 형성됐다.

해마다 이 곳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파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선율은 송산동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지만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대해 오영관 송산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의 노력이 함께 모여 문화와 예술로 더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시 송산동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들이 동아리를 꾸려 지역 무대에서 시민·관광객들과 교감하고 있다. 사진=송산동 제공

용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위원 14명에 위촉장 전달 "주거환경개선 사업 매진"

용담1동 주민센터(동장 김구옥)는 지난 17일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을 전달하고 2019년 활동보고 및 2020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앞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저소득가구 위문방문,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같은달 지난 13일에는 관내 취약가구를 선별해 방충망 및 LED등을 설치해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김구옥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해는 설 연휴 이웃돕기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더욱 매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안덕면 '함께하는 틈새복지'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사진

안덕면(면장 이상헌)·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태언)는 지난 17일 1월 정례회의를 개최해 '2020년 안덕면 함께하는 틈새복지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틈새복지 사업은 주거복지, 일상생활 유지, 정서지원, 고독사 예방 등 4개분야에 10개사업으로 예산 1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빈집활용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취약계층 방역서비스, 가사도우미 파견, 무료세탁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같이해서 아름다운 문화체험'사업과 여름방학기간 혼자 지내는 아동들의 보육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름방학 통합 돌봄 교실 운영'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틈새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3기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진 명단.

▷위원장=김태언 ▷부위원장=고창우·서영현 ▷간사=고일권 ▷총무=권미옥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설 명절 종합대책' 발표

24~27일 종합상황실 운영

서귀포시는 2020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물가안정 대책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교통 불편 해소 등 8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농·수·축산물 수급상황을 파악해 6개 분야 40개 성수품을 중점관리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일제 점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연휴기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기동반을 운영하며 공중화장실 348개소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휴기간 교통 혼잡구역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4개소 무료 개방 등 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재해·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휴기간 병·의원이 휴진함에 따라 4일간 97개소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대비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관광분야 상황실을 운영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음식점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39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연휴기간 특별 감찰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쓰레기 줄이기·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정총 "빛과 소금 같은 부녀회" 목표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가 올해 새마을 며느리봉사대 운영 등을 통해 인정넘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마을부녀회는 20일 읍면동 부녀회 회장단과 부녀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사업결산과 2020년 사업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총 28개 보조·자체 사업에 총 1억38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안입는 의류 모으기, 숨은 자원 모으기, 클린환경 감시단 운영 등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자원화 운동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 밑반찬 나누기, 농촌일손돕기, 다문화 1:1 생활멘토 등 나눔문화 운동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6년부터 공경문화 확산을 해마련해온 홀몸 어르신 생신잔치도 계속 이어간다. 새마을 며느리봉사대를 운영해 빨래·목욕·청소·말벗하기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지난해 부녀회원 모두가 개인 일정을 뒤로 한 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화려하진 않지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부녀회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미숙기자